

#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국민경제 인식조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에 1만달러를 넘어섰다.

本誌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각 경제주체의 경제행태를

조사·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조사는 한국개발조사연구소에 의해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7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편집자>

##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에 대한 평가와 경제주체별 기여도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다는 경제적 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은 기대 이상(24.7%)이거나 기대했던(41.7%)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에 있어서 기업부문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56.6%) 평가되었고, 가계(20.0%), 정부(14.8%) 그리고 외부여건(7.9%)이 그

<표-1>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대한 평가

(단위 : %)

기대 이상이다	기대했던 대로다	기대보다 미흡하다	모름/무응답
24.7	41.7	33.4	0.3

<표-2> 1만달러 달성에 대한 주체별 기여도

(단위 : %)

	가계	기업	정부	외부여건	모름/무응답
전 체	20.0	56.6	14.8	7.9	0.7
연령별					
20대	21.4	60.6	10.1	7.9	0
30대	19.8	57.0	13.3	9.4	0.5
40대	20.4	56.8	15.4	6.3	1.2
50세 이상	18.5	51.6	21.4	7.3	1.3
직업별					
농/임/어업	19.1	37.6	30.2	11.4	1.7
자영업	18.1	53.3	18.1	9.3	1.2
블루칼라	16.5	61.3	12.7	8.6	1.0
화이트칼라	16.5	64.1	10.2	8.9	0.3
가정주부	29.3	50.1	15.6	4.8	0.2
학생	16.4	64.1	13.4	6.0	0
무직/기타	15.0	62.1	11.8	9.5	1.7

뒤를 잇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은 계층일수록 1만달러 달성에 기업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연령이 높은 계층일수록 정부의 역할을 높이 사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특히 농업 및 임업 종사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정부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30.2%), 이는 지역별로 대도시 지역이 기업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읍·면 등 농촌지역이 정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경쟁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규칙이나 규범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3%에 불과한 반면 대체

〈표-3〉 경제규범 준수 여부

(단위 :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전 체	3.8	27.5	60.6	7.9	0.2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7.3	32.4	51.4	8.6	0.2
고졸	2.5	26.5	63.9	6.8	0.3
대제이상	2.7	24.7	63.5	9.0	0

〈표-4〉 경쟁에 대한 인식

(단위 : %)

	경쟁이 매우 중요시 된다	경쟁이 약간 중요시 된다	연고가 약간 중요시 된다	연고가 매우 중요시 된다	모름/무응답
전 체	31.1	25.9	22.8	19.3	0.8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25.3	29.4	21.9	21.5	1.9
고졸	32.8	25.0	22.6	19.3	0.3
대제이상	33.6	24.3	24.0	17.4	0.7
직업별					
농/임/어업	19.4	25.4	20.7	32.0	2.6
자영업	28.9	28.6	25.4	17.1	0
블루칼라	30.5	27.3	20.7	18.9	2.7
화이트칼라	33.6	22.0	21.9	21.9	0.6
가정주부	32.1	25.9	26.4	15.6	0
학생	33.5	31.0	24.3	11.2	0
무직/기타	34.3	27.2	15.7	21.9	0.9

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8.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제규범과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학생 이상의 경우 72.5%)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과 학연·혈연 등과 같은 연고 중 어느것이 더 중요시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고가 더 중요시된다는 응답(42.1%)보다 공정한 경쟁이 더 중요시된다는 응답(57.0%)이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학력자일수록 경쟁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저학력자일수록 연고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64.5%), 블루칼라(57.8%), 자영업(57.5%), 화이트칼라(55.6%) 등의 순으로 연고보다는 경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52.7%)만이 경쟁보다는 연고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이트칼라(43.8%)의 경우 에도 연고를 경쟁보다 중요시하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富力에 대한 인식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주요인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재산축적(富力)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성공한 사람의富力에 대한 인식

(단위 : %)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아서	운이 좋아서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모름/무응답
전 체	59.3	18.3	5.4	15.9	1.1
연령별					
20대	58.8	22.1	3.7	13.6	1.7
30대	53.9	24.9	2.7	17.3	1.2
40대	56.1	16.2	7.0	19.7	1.0
50세이상	67.7	8.3	9.1	14.3	0.5

〈표-6〉 재산상속이 젊은 세대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상속에 관계없이 근검 절약할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과분하게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전 체	10.8	28.8	60.3
연령별			
20대	4.2	34.1	61.7
30대	8.2	25.7	66.1
40대	13.3	25.9	60.8
50세 이상	19.5	28.1	52.3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富를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하여 이루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이룩한 재산을 젊은 세대에 상속할 경우 젊은 세대의 소비행태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대해서 『상속에 관계 없이 근검·절약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10.8%에 불과한 데 반해 『소비가 늘어날 것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28.8%, 『과분하게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19.5%가 『상속에 관계 없이 근검·절약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52.3%가 『과분하게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데 비하여 20대는 42%만이 『상속에 관계 없이 근검·절약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61.7%가 과분하게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젊은 세대의 소비행태 변화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 소비행태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주위 사람들이 소득범위내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하에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65.2%, 부정적인 응답이 34.8%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행태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

〈표-7〉 소비행태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여부  
(단위 : %)

	전적으로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3.5	51.7	29.6	5.1	0.1
연령별					
20대	11.4	58.3	26.3	3.7	0.2
30대	14.9	52.2	28.5	4.5	0
40대	14.4	52.0	30.2	3.5	0
50세 이상	13.8	43.5	34.1	8.6	0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향후 전반적인 소비행태는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의식의 성숙도

우리 국민의 질서의를 알아보기 위해 주차장·정류장·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서 우리 국민의 질서 의식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4.6%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좋다는 응답은 35.2%에 불과하였다.

이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질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갖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약 35% 정도가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마음은 있으나 못하였다는 응답도 54.8%로 나타나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8〉 질서 의식  
(단위 : %)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모름/ 무응답
전 체	2.9	32.3	48.7	15.9	0.3

〈표-9〉 사회봉사활동

(단위 : %)

	자주 한 편이다	가끔 한 편이다	마음은 있으나 못하였다	하고싶지 않았다
전 체	6.1	28.5	54.8	10.6
소득수준별				
100만원 미만	6.4	19.4	64.3	9.9
100~149만원	5.7	23.8	60.4	10.1
150~199만원	2.6	27.5	59.7	10.2
200~249만원	7.4	30.4	49.7	12.5
250~299만원	7.5	40.6	40.6	11.3
300~349만원	8.5	34.2	48.6	8.7
350만원 이상	8.4	45.0	34.9	11.7

## 직업의 선택기준

우리 국민의 직업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직업 선택에 있어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국민의 절반 정도인 46.6%가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봉급 수준(20.7%)보다는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여기(31.3%)를 중시하고 있어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회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관과 아울러 일을 수행하는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 주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새로운 과제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고 있다』는 응답은 23.3% 『주어진 과제만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났다.

직업의 귀천 또는 종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3분의 2이상(68.1%)이 그렇다고 답한데 반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3분의 1(31.9%)에 머물러 아직도 우리 사회에

〈표-10〉 직업선택기준

(단위 : %)

봉급수준	적성부합 여부	여가	기타/모름
20.7	46.6	31.3	1.5

〈표-11〉 업무수행 태도

(단위 : %)

새로운 과제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고 있다	주어진 과제만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	시시각각 독촉을 받아야 업무를 수행한다	모름/무응답
23.3	59.2	17.5	0.1

〈표-12〉 직업의 貴賤인정 여부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전 체	14.2	53.9	22.5	9.4	0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4.2	48.8	25.5	11.3	0.2
고졸	14.2	54.4	22.0	9.5	0
대재이상	14.2	57.2	20.8	7.8	0

직업 차별의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바, 이는 고학력 지향적인 우리 사회현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이상 고학력층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평균을 상회하는 71.4%에 이르고 있다(중졸 이하 저학력층은 63.0%)

## 세계화 수용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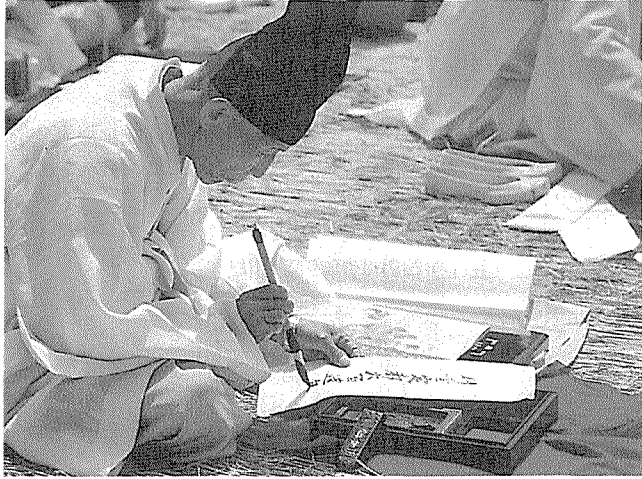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공장을 이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85.1%)가 좋게 본다고 응답한 데 반하여 나쁘게 본다는 응답은 소수(14.8%)에 그쳐 국민의 대다수가 세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소에 자신의 경쟁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변동료나 주위사람이라고 답

〈표-13〉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평가

(단위 : %)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모름/무응답
85.1	14.8	0.1



한 비율이 47.1%, 국내 동종업계 종사자라고 답한 비율이 32.9%였으나, 외국 동종업계 종사자라고 답한 비율도 18.7%나 되어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이미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고학력 소지자·학생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세계화의 장래주역이 누구여야 하느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사회교육 부문에서 앞으로 어

〈표-14〉 국민이 보는 자신의 경쟁상대

(단위 : %)

	주변 동료	국내 동종업계 종사자	외국의 동종업계 종사자	모름/무응답
전체	47.1	32.9	18.7	1.3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51.5	32.4	15.1	1.0
고졸	49.1	33.9	15.5	1.5
대제이상	40.8	32.1	26.0	1.2

〈표-15〉 사회교육 부문 중점과제

(단위 : %)

컴퓨터 등 정보분야	외국어 등 어학분야	인간성/도덕성 회복	첨단과학 등 기술분야	모름/무응답
18.9	5.7	49.6	25.6	0.2

편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인간성/도덕성 회복분야」라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인간성/도덕성 상실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기능 위주 교육이 건전한 시민의식이나 가치관의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나라경제, '96. 4월호에서〉

## 경 제 용 어

### 니치마켓팅(Niche Marketing)

니치마켓팅(Niche Marketing)이란 소비자들의 수요를 대규모 집단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특성의 성격을 지닌 소비자들의 수요와 개성에 따라 판매 목표를 설정, 소비자를 공략하는 마케팅전략을 말한다. 즉, 남이 아직 모르고 있는 좋은 곳 빈틈을 찾아 마케팅전략을 구사한다는 세분화된 시장 및 소비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틈새시장이라고

도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또한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미시족, 독신자, 미혼커플, 신노인계층,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생활형태가 나타나면서 소비계층도 세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군을 공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니치마켓팅이다.